

## 야곱의 새옹지마

성경말씀: 창42:29-38

새옹지마 혹은 인간만사 새옹지마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慰勞)하자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며 불안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위로(慰勞)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불려 나가 대부분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세상의 새옹지마는 통계와 운에 근거한 것이다. 자기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기독교는 운에 따라 변하는 단순한 소망을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인격체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인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섭리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는다. 사주팔자 무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를 살피려 한다.

섭리: 보편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 야곱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사람

마마보이로 자라면서 약삭빠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호탕한 성격이 아니라 꾀를 부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인간의 꾀를 동원하여 인생을 살았다.

팔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충고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한다.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나를 여기로 다시 데려오시면 내가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함."

그리고 하란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났고 이들을 위해 14년 봉사, 외삼촌을 위해 6년 봉사

20년 뒤 야반도주, 하나님이 라반을 물리치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함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벧엘로 가지 않고 살렘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벧엘로 올라감, 여기서 라헬이 죽음, 아직도 성질이 남아 있음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로 팔려감, 총리가 됨

온 땅에 기근이 들,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내려감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만 곡식을 살 수 있다고 말함

야곱의 원망: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도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

### 야곱의 새옹지마

야곱은 지금 130세, 147세까지 살았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악한 일 가운데서 꾸준히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

하나님의 열심이 섭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며 수를 늘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 하나님의 때가 있다.

### 우리를 대적하는 사례들

아벨: 바른 말을 해서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

요셉: 하나님이 보여 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맞았다.

다윗: 나라를 구하고 왕의 사위가 된 것으로 인해 뿔박을 당했다.

요: 하늘에서 마귀가 대적함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었다.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였다.

다니엘: 하나님께 경배하려다가 모함에 빠져 사자 굴에 들어감

바울: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결국 로마의 법정에서 서서 죽게 됨

예수님: 죄 없으신 분, 답답한 마음으로 하자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

나의 경험

박사 학위를 하면서 일이 안 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이 속 썩일 때 나는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한다.”고 고백하고 울었다.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목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마음이 답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올해 초 미국 방문, 웨이트 박사, Jim Taylor, 한국말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 성경을 번역한다고 한다. 영어 성경의 완전함을 모른 채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해석하여 한국말 성경을 낸다고 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자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 목사들이 몇 명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흥정역 성경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자기들의 번역을 내겠다고 결집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성경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 성경을 쓰고 있다.

목사는 의로운 사람이라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소식을 접할 때 처음에는 발끈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구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

예수님도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나야 어떠랴?

말씀보존학회 전화 문의

거기서는 누가 전화해서 나에게 물으면 나를 가리켜 ‘사악한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야곱의 새옹지마를 믿는다.

롬8:28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신다.

## 우리를 대적하는 사례들 2

사업, 직장, 결혼

자녀들

부부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는가?”

여기서 일어서야 한다.

역경의 날에 쓰러지면 우리의 힘이 적은 것이다.

이 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

히2:10, 18

히5:7-10

## 결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야곱의 인생, 목사의 인생을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롬8:28

★★★